„Trostlose Trostfrauen“,“ 위안없는 위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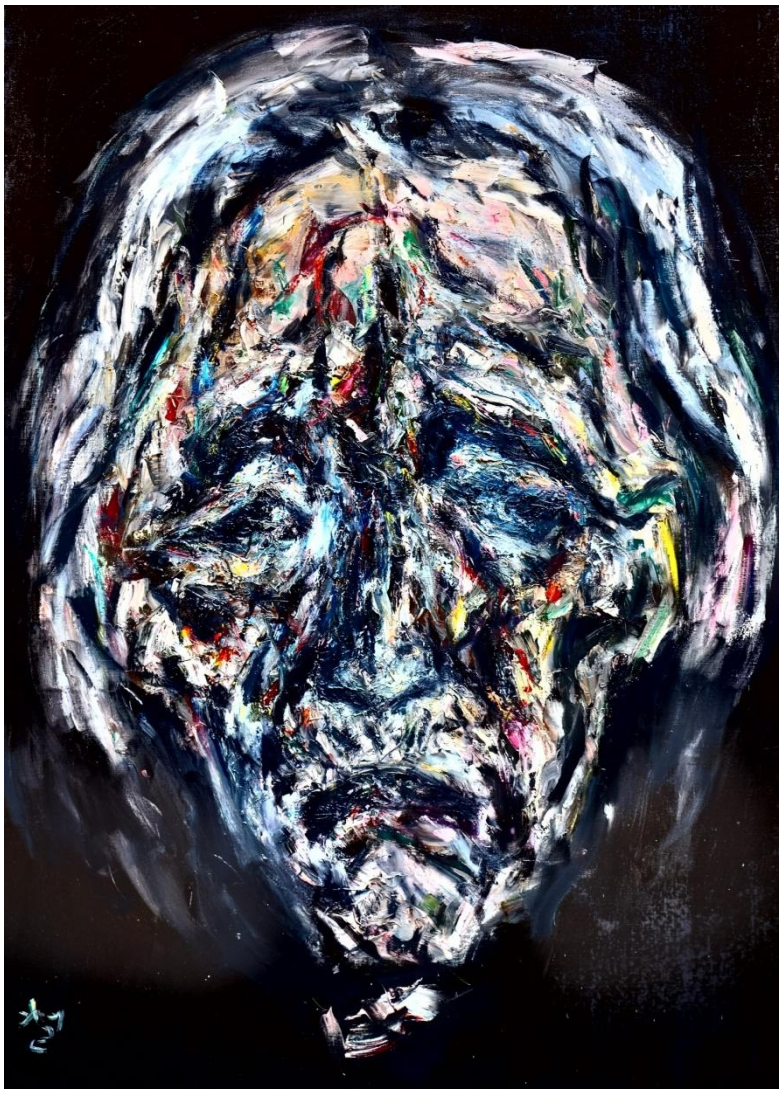
베를린 2018

이광 쿤스트페어라인 64 대표

,**위안부**‘라는 명칭은 유럽과 독일에서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위안을 주는 여성‘이란 뜻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로 징용된 여성들로 ,일본군의 위안부‘, ,일본군의 성노예‘가 더 정확한 명칭이며, 강제 징용, 납치와 매매라는 비인권적 수단으로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대규모 여성들을 인권유린한 ,전쟁시 성범죄‘ 사건이다. 대부분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로 필리핀,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등 당시 일본제국군이 점령한 나라들을 포함 13 개국에서 10 만-30 만명의 여성들의 강제 동원되어 전쟁이 끝날 무렵, 위안부들을 대부분 현장에서 사살하였다. 살아남은 위안부들의 증언을 통해 들어난 충격적인 사실들은 나이 어린 소녀들, 11-13 세 미성년 마저도 강제 납치하여 하루에 30 여명의 남자들을 상대하도록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구타와 고문등 신체에 가해진 폭력과 성폭력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어린 소녀들이 자살을 시도할 수 밖에 없던 진술을 접할때 이 전시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전범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은 이 사건을 진실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이미 고인이 되어 자신들의 할말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소녀들에게는 영원히 위로받지 못할 억울한 죽음으로 묻혀진 것이다.

1945 년 전쟁의 해방으로 부터 2018 년 오늘에까지 살아남은 여성들에게 위안부였던 고통의 기억은 전혀 늙지 않는다. 1990 년 네덜란드의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스스로 증언했고, 1991 년 8 월 14 일 한국인 최초로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묻혀졌던 위안부의 존재가 들어나기 시작했다.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던 위안부들이 목소리를 내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내야 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살아남아 고통의 환부를 열어 보이고, 위로와 동참을 받고 싶은 90 세의 어린 소녀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위안없은 위안부‘는 제 3 자인 우리의 위로로 사실 그녀들은 겪은 적 없었던 부재된 위안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발단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왜냐하면 예술의 힘은 고통과 연민의 연장선에서 혹은 색이되어 발산하고, 빛이되어 번쩍이며, 뜨거운 소리가되어 들리지 않은 낮은 신음소리와 울음을 대신 울어주고, 할머니가 된 소녀를 꼭 안아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순철작가의 ,얼굴 (Gesicht),'넋(Geist)의 숭고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의 회화작품의 주된 모티브였던 한국인의 얼굴, 그 안에 정체성을 고심하게 된다. 1944 년 생인 작가는 2 차 세계대전,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성장하고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그리고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사의 비극은 그의 회고속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집집마다 한명씩은 가족을 잃었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무게와 고통을 자신의 예술속에서 있는 그대로 숙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온 격변의 시대 대변자이자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행적을 바라볼 때, 고통이 내재된 한국인적 정체성의 슬픈 아름다움에 전율이 느껴진다. 작품 „얼굴“, „혼“의 굵고 힘찬 붓터치와 두터운 물감의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두께속에 한국 땅처럼 투박하고 밀도높은 대지의 힘, 자연의 어머니로서의 응축된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다. 정제되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간미를 풍기며, 힘겨운 삶을 풍화작용처럼 말없이 이겨온 담담한 한국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위안부를 오랜동안 작업한 그에게 있어 위안부 할머니는 너무 가엽고 귀한 존재여서, 직접 가서 스케치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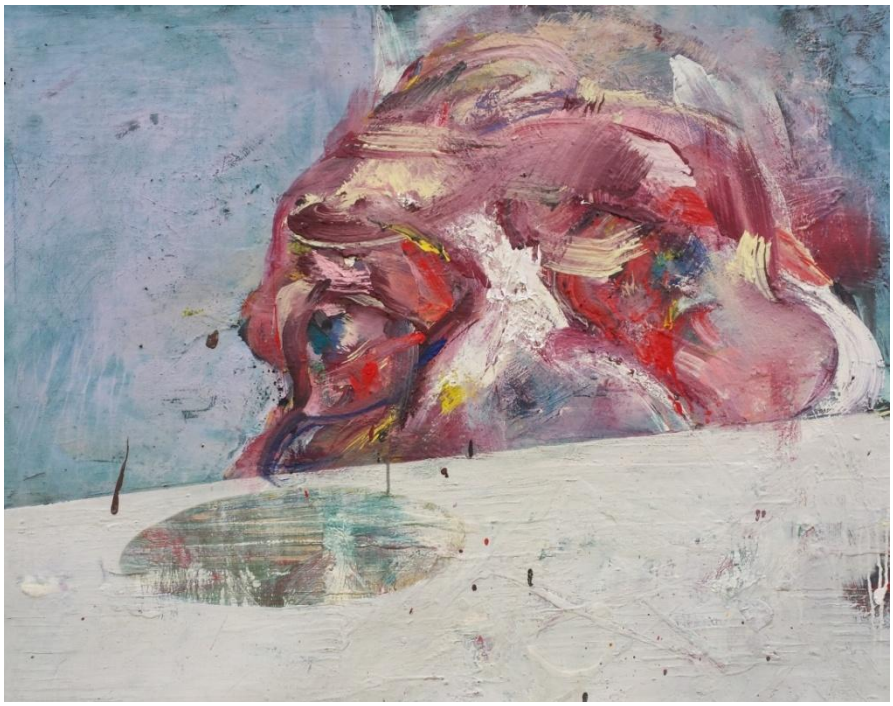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 저너머의 침범할 수 없는 숭고한 대상인 것이다. 그는 위안부 얼굴을 고통의 대리역할로 존재의 당당한 표현속에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있다. 어떤 고통도 묵묵히 참아내고 평화로이 반쯤 웃어보일 것 같은 해탈한 노인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예, 저 아픕니다. 그래도 남을 아프게는 안해요.“ 피해자의 삶을 숙연히 받아들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끝까지 지킬 비폭력의 위대한 메세지를 폭력보다 강력하게 담고 표출한다. 두려움없이 가해자를 마주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선한 모습이 성스럽게 살아 있기에 그의 그림속의 한국인의 모습은 당당하고, 착하고, 위대하며, 고통스럽다. 그리고 강하다.

1999 년대부터 “**겹겹 프로젝트**” (juju-project.net) 라는 이름 아래 한국, 중국, 일본등의 나라에서 위안부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 작가 **안세홍은** 사진 한장의 힘 바로 예술의 힘을 믿고, 위안부 사진을 보고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진실이 가려질 수 없다‘는 메세지와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공유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8 년 5 월 7 일 서울 시청 갤러리에서 약 100 점의 위안부 사진전을 개최된다. 사진을 찍으며 만나온 할머니들의 개별적 사연들을 기록하고, 생활고에 찌들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후원금을 마련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작품 „이수단“ LEE Su-dan 은 1940 년 18 세의 나이로 인신매매로 끌려가 5 년간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국인 할머니 사진이다.

작가기록중: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졌다. 정신분열증이 생기면서 아이 사진을 방에 붙여 두었다. 그리고 경로원장이 선물한 인형을 아기처럼 생각하며 얘기를 나누고, 잘 때도 안고 잤다.

위안부 할머니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하여, 소녀였던 당시의 기억처럼 생생하다. 지나친 고통, 트라우마는 차라리 알츠하이머처럼 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위안부들의 진술은 바로 어제일 처럼 생생하고 뇌리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일본군들이 배에 칼로 문신을 새기고, 담배불을 내 자궁에 지져됐어.“ 하는 진술을 하는 할머니들은 이 처참한 기억에서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는 딴세상의 사람같다.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광**은 „죽음에 대한 연구“라는 테마로 2005 년부터 삶과 죽음의 첨예한 경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없는 인간의 운명을 회화작품으로 표현하며서, 죽음이 내재한 인간의 삶속에 고통과 행복의 무상함을 그리고 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제한된 생에 대한 자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이 이지만, 고통인지 위안인지 알 수 없는 죽음을 그져 고통스럽게 여긴다. 대부분 홀로사는 노인의 삶은 바깥 세상과는 괴리된 독립된 자기 영역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속에 죽음을 기다린다.
작품“빈집“의 노인의 얼굴속에 절반은 죽음이 잠재하고, 죽음의 상징으로 해골의 형상이 죽음에 임박한 얼굴속에 도사리며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작가는 수많은 위안부의 개별적 사례들을 접하다, 인간의 „악“을 피해자위에 새겨진 고통으로 바라보았다.이름없이 위안부의 삶을 살다가, 위안부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간 수많은 존재들의 무모한 죽음과 수십년을 고통의 기억을 반복하다 죽어간 할머니들의 죽음속에 „가해자“에게 복수마져 못하고 힘없이 사라진 약자들의 아직 못다한 말들을 속으로 삼킨 그녀의 그림은 강력하고 슬프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약자, 여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사회에서 강자들의 약육강식.적자생존의 논리에서 피해를 보고, 이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존재들은 도처에 있으며, 이 근원의 모순에는 여성성의 올바르지 못한 근간이 여러 병폐를 만들어낸다. 미국,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kate-hers Rhee** 는 이 여성성의 동양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컨셉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일명“죽부인“으로 상징된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비판하는 오브젝트 작업 „ 보름달“을 선보인다. 죽부인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남성의 도구화된 여성으로 대체하고 외모의 미를 가치의 척도로 삼는 현대사회의 여성비하의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있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륜적 문제이며 이문제의 핵심에는 남성들의 책임과 도덕적인식이 큰 몫을 차지한다. 여자는 어머니. 아내. 딸로 대표되는 가족의 근원이며, 생명과 평화의 수호자이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인류 생명의 순환을 가능하게 할 생명 잉태를 가능케할 자궁을 지닌 존재라는 우주 초월적 정체성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 전시에 가장 직접적이고 숨막히는 작품을 꼽자면 **유연복** 작가의 판화 작품“능욕도“이다.
유작가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독보적인 판화 작가로 한국의 풍경을 전통회화와 접목하여 색다른 시각과 경지를 개척한 훌륭한 장인이며, 판화작품을 통해 1980 년이후 등장한 민중미술의 선두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예술가의 사회적 의무를 몸소 실천한 위대한 작가이다.
„능욕도“는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고통에 이그러진채 반즘 실신한 여인의 얼굴과 곧 성폭행을 하려는 일본군의 무자비한 모습이 적나라히 보여진다. 단색판화의 강렬한 흑백의 대조와 칼로 새긴듯 선명한 고통의 긴장은 작품 전체를 히스토리적으로 지배하고있다.
이 상황에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없을 절망적인 작품, 그래서 가해자에게 분노가 솟아나지만,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가해자의 존재감으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무력하게 한다.
전쟁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뿐아니라,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 마저 국가에 의해 희생된 무지한 숙명적 존재라고 보일만큼 작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통스러워 보인다.

뮌헨에서 활동하는 **황현덕**작가는 작품 „아리랑“과 „쓰리랑“에서 제 3 자로 바라보는 풍경속에 ,집을 떠남‘ 그리고 , 집으로 돌아옴‘ 이라는 상황을 회화로 그리고 있다. 한국인의 대표적 구전음악 „아리랑“이라는 곡에서 제목을 차용하여 쓸쓸하면서 여운이 남고 뭔가 끝나지 않은 얘기와 가락속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다. 왼쪽을 향해 꿈꾸듯 걸어가는 소녀들의 얼굴은 정확한 얼굴윤곽도 표정이 없다. „아리랑“의 새하얀 비를 맞는 위안부 소녀는 황작가가 도저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불확신한 존재로, 바로 위안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그 존재가 너무 가엽고,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차마 논리적인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 아닐까?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인류사에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영역까지 인간을 내몰수 있다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는 **한슬기** 작가에게도 보여진다. 한작가는 위안부의 정체성을 오히려 마주대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죄책감으로 고민한다. 그런 과정에서오히려 위안부를 타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를 위안부라고 역할을 대입하여 작품제작에 임하였다. 고통받는 주체이자 고통을 외면하고 싶은 타자로서의 극단적인 모순이 외부와 분리되어 혼자만의 공간에서 갇힌 형상으로 나타난다. 작품 „ 무릎꿇기" 에 현실과 분리된 공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무력하고 비어보이는 존재로서 흰색의 얼굴도 몸도 부정확한 형상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속에 어떤 시간들이 끊임없이 흐르고있는 가운데, 정지당한 삶을 우연히 들킨듯한 누군가가 회화작품속 다시 보이지 않은 벽으로 숨어버릴 듯한 소녀가 앉아있다.

독일 할레에서 활동하는 **이지현**작가의 강철과 스타킹 설치작품 „늙지 않는 오래된 상처"는 높은벽이 되었다가 낮은 벽이 될 수도 있고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다가 닫힌 공간이 될 수도 있는가변할 수 있는 벽돌쌓기식의 구조물이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접목하고 철의

재료를 선택한 데에는 강철같이 단단하게 생존한 할머니들의 용기를 상징화 한 것이다. 반대로 찢기고 구멍이 나고, 쉽게 망가지는 소재인 스타킹은 여성 전용물이고, 물리적으로 약한 성적 대상물로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철로 만들어진 개체들은 스타킹에 싸여 있고, 망가진 스타킹은 표면의 손실이 내부의 강철벽돌형상의 단단함으로 내부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없고 침범할 수 없다는 안전을 담보하는 상징을 담고 있다. 이 개체들은 한 분 한 분의 위안부를 대신하여 함께 모여 벽이나 담처럼 외부의 압력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나타낸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면의 강인함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숭고한 의지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1992 년 1 월 8 일 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개최로 시작된 수요집회는 미야자와 기이치총리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정기적시위를 계속하여 2011 년 11 월 14 일 1000 회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에도 시민단체와 평화단체, 종교계등이 나서서 함께 시위를 돕고 있다. 이 수요집회에 고령의 할머니들이 함께 주도하여 위안부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전범자와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카셀에서 활동하는 **정승규**작가는 „조작"이라는 오래된 위안부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신선한 작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을 간접적으로 고발한다.

사진은 1944 년 연합군에 의해 자료로 남겨진 것을 선택하여 수작업으로 오리고 붙여가며 총 1200 점의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한 독특한 작업이다. 영상의 회화적 특성은 정작가가 회화를 전공한데에 기인하기도 하고, 낡은 사진의 회화적인 표면감에 있을 수도 있다. 사진을 자르고 형상을 늘리고 조작하는 수작업처럼 역사왜곡, 진실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담고 일본정부의 전범국으로서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위안부의 역사는 수작업처럼 조작되어 있다.

이외에 전시와 더불어 2018 년 5 월 25 일 오후 7 시 „**한국문화공연의 밤**" 과 2018 년 6 월 7 일 오후 7 시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강연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요찬 현대무용가는 „ 나는 할 말이 있다.“는 주제로 전쟁 당시 이름도 모르고 사망한 수많은 위안부의 영혼을 대변하는 춤을 선보일 예정이며, **윤송일** 거문고와 **김보성** 장구반주로 „달무리“란 곡을 연주할 예정이며, **박명현** 전통무용.음악가는 „진도북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차민**씨는 „2016 년 시국선언“이라 곡과 위안부를 위한 곡을 부를 예정이며,

이외 유럽과 독일에서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두들소리**의 사물놀이 공연이 베를린 하늘에 울려 퍼질 것이다.